

9.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9.1 평가의 필요성

일정한 기간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해 보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장점과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난 장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다음 기간에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평가를 위해 기준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목적이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전과 운영된 후를 비교해 보면 리스크가 감소한 것을 수치적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 또는 활동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슈가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결국 이슈는 외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특히 다수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9.2 평가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제도가 하나의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등급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회사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는다면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등급제도는 각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벤치마크할 대상을 정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어느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이 기업 비밀로 간주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모범으로서 종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포럼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통해 혹은 개별적인 접촉으로 정보를 얻고,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 때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과의 갭(gap) 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분석은 회사 내부의 전담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